

2024. 1. 27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2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식품정책과장	양광숙	02-2133-4700
식생활개선팀장	김능희	02-2133-4737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시 '애들이 과일먹자' 겨울방학까지 확대해보니... "과일, 채소 이제 잘먹어요" 현장 만족도 향상

- 시, 취약아동 건강한 식습관 형성 위해 '23년부터 과일공급 기간 기존 12월서 올해 2월까지 연장
- 시·구·민간 협력 240개 지역아동센터 7천명 과일 주2회, 월1회 영양교육 지원
- 아동은 식품·영양지식, 과일·채소 섭취율↑, 학부모 94.7%, 담당자 98% '사업 지속필요' 응답
- 시, 올해 2월까지 과일공급 지속, 오는 3월 '24년 참여기관 모집 등 약자와 동행 강화

"영양교육을 듣고 나서 옛날보다 채소와 과일이 맛있어졌어요!" (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, 방○○)

"과일, 채소를 매일 먹고나니 더 건강해진 기분이예요!" (좋은지역아동센터, 이○○)

"집에서 자주 못 먹는 과일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, 양파나 브로콜리 같은 야채를 골라내고 먹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다 먹게 되어 좋습니다."
(해피아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)

"과일을 싫어해서 안 먹었는데 과일먹자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가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!" (드림홈 스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)

"과일값이 비싸 가정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데 센터에서 과일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니 과일을 잘 먹지 못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잘 먹게 되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올해 겨울방학까지 과일 공급 기간이 연장되서 너무 좋습니다." (비둘기 지역아동센터 담당자)

- 성장기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에게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는 서울시 ‘애들아 과일 먹자’ 사업이 결식·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식습관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겨울방학(2월)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, 아이들의 과일 및 채소 섭취율을 높여 영양 불균형은 해소하고 학부모와 담당자들의 체감 만족도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- 서울시 ‘애들아 과일먹자’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월 1회 영양교육,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민·관 협력사업이다.
 - 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서울청과(주),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, (주)중앙청과, 동화청과(주), 한국청과(주), 대아청과(주), (주)희망나눔마켓,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추진해왔다.

-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‘애들아 과일먹자’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240개소 내 아동 7,000명에게 제철 과일공급과 식품안전·영양교육을 지원했다.
 - 시는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기존 12월까지였던 과일공급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고 지난해 3월 밝혔다. 이를 위해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는 6개 도매시장법인에서는 1억여 원의 추가 기금을 조성해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.

- 이에 사업참여 아동에 대한 전·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▲규칙적으로 배변을 한다는 아동은 1.9%p(76.5%→78.4%) ▲영양표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아동은 12.7%p(60%→72.7%) ▲매일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다는 아동은 각각 4.1%p(35.3%→39.4%), 2.6%p(29.6%→32.2%) 증가했다.
 - 이번 설문조사는 ‘애들아 과일먹자’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 4,100명, 학부모 5,780명, 지역센터 담당자 300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.

- 또한, 참여 아동의 70%는 ‘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’고 했으며,
 - ▲이전보다 식생활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아동은 56.4%
 - ▲예전에 비해 간식을 선택할 때 좀 더 건강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아동은 57.2%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식생활 태도 형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-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학부모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만족도도 높았다. 사업 참여 아동 학부모의 92.4%,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98%가 ‘23년부터 연장된 과일 공급 기간에 대해 ‘(매우)만족한다’고 답했다. 특히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 학부모의 94.7%,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98%가 ‘(매우)그렇다’로 응답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 체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.
 - ‘자녀의 식생활 및 영양지식이 향상됐다’고 답한 학부모는 3.9%p(74.1% →78%) 증가했다.

- 서울시는 겨울방학 기간인 2월까지 과일을 지원하고, 오는 3월에 올해 ‘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’ 참여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.
 - ‘24년 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해당 자치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.

-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취약계층 아이들의 ‘영양과의 동행’을 위해 제철과일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, 식품안전·영양교육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겠다.”며 “앞으로 ‘애들아 과일 먹자’ 같은 민·관 협력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‘약자와의 동행’을 강화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붙임. ‘애들아 과일먹자’ 사업 관련 사진



과일 제공



영양교육